

미국의 이란 핵협정 탈퇴가 석유시장에 미치는 영향

작 성

선임연구원 성동원 (3779-6680)

dwsung@koreaexim.go.kr

1. 2018년 유가 추이 및 상승 요인

□ 2018년 유가는 견조한 수요증가, OPEC 감산 실행과 함께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상승세 지속, 5월 중순 현재 배럴당 70달러대 기록

- 2018년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견조한 석유수요 증가세 지속
 - 1분기 세계 석유수요는 전년동기 대비 155만 b/d 증가, 2분기 석유수요는 전년동기 대비 약 100만 b/d 증가할 전망(IEA)
- 최근 OPEC 감산 이행률은 베네수엘라 생산 차질 등에 힘입어 양호한 실적
 - 2017년 1월부터 OPEC 12개국, 非OPEC 10개국이 180만 b/d 감산을 추진 중으로 감산목표량 대비 이행률은 2018년 2월 152%, 3월은 163%에 달함
- 1월은 미국 석유재고 감소, 리비아 송유관 폭발 사고 등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등으로 유가가 배럴당 70달러에 육박(\$67.98/bbl, 두바이유, 1.25.)
 - 1.12일 미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제재 유예를 결정했으나, 유럽 동맹국들이 이란 핵협상 문제점을 수정하지 않을 시 5월 중순 철회 경고
- 2월은 미국 증시하락 및 달러강세, 생산량 증가에 따른 공급과잉 우려확대로 2월 중순 배럴당 60달러선 붕괴(\$59.4/bbl, 두바이유, 2.14.)
 - 2월 둘째 주 미국 석유 생산량은 전주대비 33만 배럴 증가(3.35%)한 1,025만 b/d를 기록하며 1983년 이래 처음으로 주간 생산량이 1,000만 b/d 초과
- 3월 이후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, 베네수엘라 생산량 감소 등으로 상승세를 지속하며 5월에는 2014년 11월 이후 최고치 기록(\$73.93/bbl, 두바이유, 5.9.)
 - 미국의 이란 핵제재 관련 이슈 지속, 시리아 정정불안, 사우디 석유장관의 2019년 말까지 OPEC 감산 연장 가능성 언급 등이 유가상승 지지
 - 한편 미국 석유생산량과 시추기 수는 지속적인 증가세*

*4월 넷째 주 석유 생산량이 1,061.9만 b/d로 이는 전년대비 132.6만 b/d(14.27%) 증가한 수준, 5월 첫째 주 미국 석유 시추기수는 전주 대비 9건 증가한 834건 기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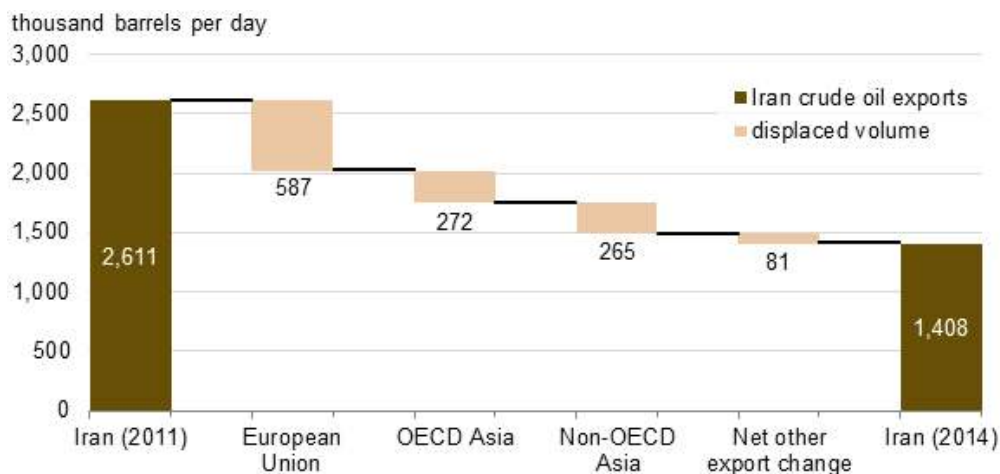
2. 미국의 핵협정 탈퇴가 석유시장에 미치는 영향

□ [단기] 이란산 석유수출이 감소하겠으나 과거와 같은 급격한 감소가 아닌 30만~40만 b/d 수준 감소, 배럴당 70달러대 유가강세 지속 전망

- 과거 이란 제재로 2014년 이란산 석유 수출량은 2011년 대비 약 120만 b/d 감소*했으나 제재해제 이후 2018년 4월 수출량이 2011년 수준 회복

* 지역별 이란산 석유수출 감소량은 유럽 58.7만 b/d, OECD Asia(한국, 일본 등) 27.2만 b/d, 非OECD Asia(중국 등) 26.5만 b/d 등

이란 석유수출량 변화(2011vs.2014)



자료: EIA(2015)

- 대이란 제재 해제 이후 2016년 1월부터 이란 석유 생산량* 및 수출량** 지속 증가세

* 제재해제 이후 2017년말 기준 이란 석유생산량은 380만 b/d로 이는 2015년 평균 생산량 310만 b/d 대비 70만 b/d 증가한 수준

** 2018년 4월 이란 석유 수출량은 262만 b/d로 2015년 평균 수출량 대비 약 2배 증가하였으며, 4월 수출량 중 중국, 인도로 수출된 물량이 140만 b/d(이란 석유부 산하 언론사 Shana)

- 제재해제 이후 이란산 석유 수입량 증가가 가장 많은 국가는 유럽과 한국

* 유럽은 제재기간 동안 이란산 석유 수입량이 거의 없다가 제재해제 이후 2017년 60만b/d로 증가, 한국은 2011년 25만 b/d 수입 이후 제재기간 동안 11.5만 b/d로 감소했으나 제재 해제 이후 2017년 36.3만 b/d로 증가하며 수입량 증가가 가장 큰 국가 중의 하나(코리아pds)

- 미국의 핵협정 파기와 관련하여 미국 외 당사국들은 제재 부활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과거와 같이 단기간 내 UN 안보리 차원의 이란 제재에 따른 방식의 석유수출 급감은 어려울 전망
 - 유럽은 이란과 에너지 부문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고, 중국과 러시아는 최근 미국과의 무역분쟁에 따른 대립구도를 보이고 있어 미국의 일방적인 제재에 동참할 가능성이 낮아, 이란 석유수출 감소 예상량은 약 30만~40만 b/d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임
 - 유럽의 핵협정 잔류 시 과거와 같은 석유운송 선박보험 제재가 재개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평가
 - 다만 미국이 핵협정 파기와 함께 이란과 거래하는 제 3국 기업, 개인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는 Secondary Sanction의 전면 부활을 발표하며, 최대 6개월의 협상기간동안 유럽지역에 대한 이란산 석유수출이 실질적으로 차단될 경우 과거와 같이 100만 b/d 이상 감소할 가능성도 존재
- 단기적인 수출량 급감은 없겠지만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당분간 배럴당 70달러대 수준 지속 전망
 - 2018년 유가 상승은 미국 석유생산량의 지속적인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이란 등 중동의 리스크 프리미엄이 지속적으로 반영된 결과

□ [장기] 이란 제재가 장기화될 경우 이란 업스트림 부문 투자부진에 따른 중장기적 공급부족 리스크 확대로 유가상승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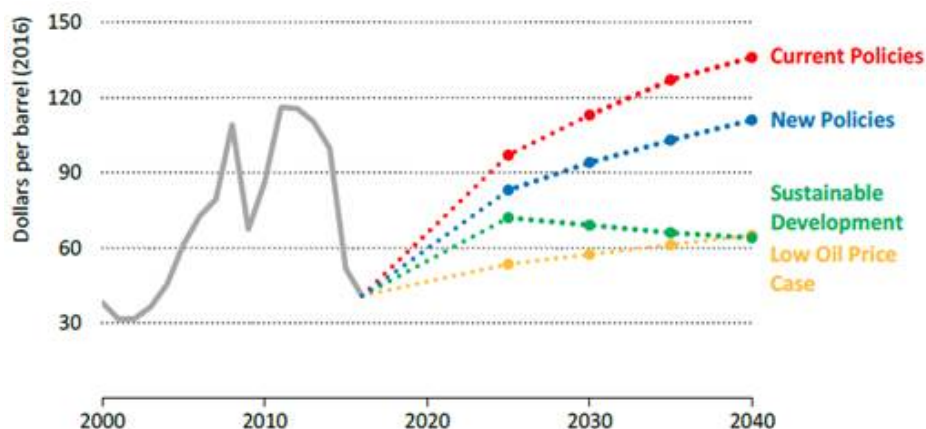
- 이란의 석유생산 및 수출이 장기적으로 증가하려면 과거 제재 기간 동안 이루어지지 못한 업스트림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 및 기술도입 절실
- 하지만 이란의 석유·가스 업스트림 투자와 관련한 금융거래 상의 제약으로 원활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
 - 미국은 이란 제재해제 이후에도 자국 기업과 국민에 Primary Sanction을 유지하고, 이란의 미국 금융시스템 이용제한 조치 견지

- 이란은 석유생산 Capa를 현재 380만 b/d에서 2021년 470만 b/d로 확대할 계획이나 미국의 제재조치 부활로 외국기업들의 이란 업스트림 부문 투자활동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
- 2020년 이후 미국 셰일오일 생산 증가세 둔화에 따른 OPEC 의 존도 증가, 리드타임이 긴 전통유전에 대한 투자부진 누적 등으로 중장기적으로 유가 상승 전망
- IEA는 전조한 수요 증가와 전통유전 고갈, 노후화 등이 꾸준한 유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여 2025년 배럴당 80달러 중반, 2040년에는 110달러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(WEO2017, New Policies Scenario, 2017.11월)한 바 있으며 금번 이란 사태의 영향으로 유가 상승폭이 더 확대될 가능성

< 참고 > IEA의 시나리오별 장기유가 전망

- **Current Policies(현정책 시나리오)**
2016년 중반까지 시행방안이 공식적으로 채택된 정책만을 고려한 시나리오
- **New Policies Scenario(신정책 시나리오)**
현재 실행 중인 정책, 규제 뿐 아니라, 구체적인 실행방안까지 도출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미래에 도입할 것으로 공표된 에너지 정책과 규제까지 포함하여 그 영향을 고려한 시나리오
- **Sustainable Development(지속가능 발전 시나리오)**
에너지 관련 UN의 지속가능 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나리오
- **Low Oil Price Case(저유가 시나리오)**
상당한 규모의 타이트 오일(약 2,000억 배럴), 디지털 기술을 통한 개발비용 상승 억제, 적극적인 정책에 힘입어 2040년 약 9억 대의 전기차 보급을 가정한 시나리오

IEA의 장기유가 전망



자료: IEA(WEO 2017, 2017.11월)